

#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공감능력을 매개변수로 노인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양정남<sup>1</sup>, 최은정<sup>2\*</sup>, 김화선<sup>3</sup>

<sup>1</sup>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up>2</sup>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up>3</sup>혜움심리상담연구소 심리상담사

##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Elderly Contact Experience and Aging Knowledge on the Elderly Discrimination Recognition Using the Empathy Ability

Jeoung-Nam Yang<sup>1</sup>, Eun-Jeung Choi<sup>2\*</sup>, Hwa-Sun Kim<sup>3</sup>

<sup>1</sup>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sup>3</sup>Psychological Counselor, Heyum Psychological Counseling Institut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2018년 12월 20일~30일까지 J도 D대학 학생 35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의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인식의 영향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간에도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화지식 함양과 노인 접촉경험을 확장하고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노인차별인식, 노인접촉경험, 노화지식, 공감능력,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in relation to contact experience of the elderly and their knowledge level of ageing.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20th Dec. to 30th of Dec. 2018 355 university students from D university in J. province were surveyed. Data was analysis by using reliability test,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ful regression analysi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was confirmed by Sobel's verifi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empathy was verifie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contact experience and discrimination of elderly people. In addition,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empathy was verified between level of aging knowledge and the perception of elderly discrim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practic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level of aging knowledge and to increase contact experience with elderly people. There is also a need to enhance empathy in order to improve the awareness of discrimination against elderly people in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s among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Ageism, Contact of elderly, Knowledge about ageing, Empathy, University student.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Dongshin University's research fund for study year in 2018.

\* Corresponding Author : Eun-Jeung Choi(ejchoi3781@dsu.ac.kr)

Received October 16, 2019

Revised December 26,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0

## 1. 서론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은 수많은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1965년에 기대수명이 54.9세였던 우리나라는 2015년에 81.4세까지 향상되면서[1],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노인복지제도의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 및 불평등은 다양한 학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노인차별인식(Ageism)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보다는 서구에서부터 먼저 진행되었으며 초기 연구자들은 노인차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2].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노인차별인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요인 규명, 노인차별 해소를 위한 연구와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나 인종차별(racism)이나 성차별(sexism)에 비해서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3]. 2018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선진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노인차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노인차별 해소를 위한 전세계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4].

노인차별인식은 노인의 사회적 계층화를 심화시키며[5], 노인 개인의 정체감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6].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 자신이 갖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수명과 신체적 질병 및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노인이 느끼는 노인차별 인식은 세대 간의 분리와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이 되며[8, 9], 윤리적·법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차별은 노인자살이나 노인학대 및 방임과 같은 노인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10, 11]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노인차별인식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문제로[5, 12, 13],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노인에게 대해 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4, 15]. 특히, 대학생들은 노인에게 언어적 차별을 인식하나 차별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16], 이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차별인식과 관련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영국노인이 지각한 노인차별(34.8%)이 미국노인(29.1%)이 지각한 노인차별보다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노인차별인식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노인차별의 수준이 달라짐을 보고하였다[17]. 한편 노인차별과 관련하여 의료전문가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 전문가들도 노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18],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도 노인차

별, 낙인 등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19, 20],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차별인식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21].

우리나라의 경우 86.2%의 노인이 노인차별을 경험하였다고 하며[8], 이는 서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노인차별이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적극 대응하려는 우리 학계나 정부의 노력은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천현장에서도 노인차별과 관련하여 노인인권교육[22]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노동 관련 차별에만 국한되고 있어[23-25],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차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에게 대한 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14, 26-28]과 노인접촉경험[29-31], 노인에게 대한 지식[32, 33]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노인차별에 대한 실태 및 태도[8] 연구가 보고되어 노인차별인식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차별로 인해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결과들을 인과모델로 검증한 연구[34], 노인차별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고[9], 노인의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35] 등이 보고되어 노인차별인식에 대해 복합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차별인식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어 왔으나[36-38], 간호학 전공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39]가 주를 이루었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노인차별인식과 관련된 여러 변인 가운데 노화에 관한 지식은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아 왔다.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일부 연구가 보고되기는 했으나[40], 많은 연구들은 노화지식과 노인차별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4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지식부족과 부정적 인식이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고[42], 노화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게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시사하였다[43]. 또한 노화지식은 노인에게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며[44], 노화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차별 수준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노화지식을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영향요인은 대학생과 노인과의 접촉경험이다[31, 46, 47]. 최근 연구결과들은 노인과의 단순한 접촉빈도보다는 노인과의 상호작용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시사하였으며[48], 노인과의 동거경험

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다[49]. 따라서 노인과의 접촉 빈도, 상호작용의 질과 유형 등은 노인차별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을 예측할 수 있다.

노인차별을 포함하여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감능력(empathy ability)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50].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느끼고 정확하게 인식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는 상호작용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51], 중요한 대인관계 기술 중 하나이다[52].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공감능력과 노인차별인식 상호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검증되었고[53, 54].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대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증진을 위한 공감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54]. 국내 연구에서도 간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39], 간호사나 사회복지분야 전공자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5, 56]. 이와 같이 공감능력이 노인차별인식 영향요인으로 중요성이 시사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을 선행변수로 설정함과 동시에 공감능력을 중간적 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긍정성과 부정성은 그 정도나 수준의 여하에 따라 향후 세대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노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 정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한국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수준이 외국 대학생보다 높고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다고 보고함으로써[38],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노인접촉경험,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그리고 공감능력 수준을 확인하고,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에 영향 및 이 변수들 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 개선, 노화지식 함양과 노인접촉경험 확장 및 이를 위한 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훈련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런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노인접촉경험, 노인차별인식, 노화지식, 공감능력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가?

셋째, 이 영향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2. 선행연구 고찰

### 2.1. 노인차별인식과 노인접촉경험 및 노화 지식

노인차별인식과 관련하여, Palmore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초한 부정적인 태도 및 차별행위'를 노인차별이라고 규정하였고[14], 이는 성차별 및 인종차별과 함께 3대 차별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인차별은 인종차별 및 성차별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고[57]. 대학생이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노인차별에 대한 심각성이나 민감성이 부족하여[3] 사회 각 구성원의 관심이 더 요구된다.

노인차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과거에는 서양의 노인차별인식 수준이 아시아보다 높다고[58, 59] 발표되었다. 이는 아시아의 유교적 효의식으로 인해 노인차별 현상이 더 적게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었으나[60], 최근 서양보다 아시아 국가에서 노인차별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61]. 미국과 중국대학생의 노인차별 태도 비교연구에서도 중국대학생이 미국대학생보다 노인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는 상이한 문화 간에 노인차별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하여 Allport의 접촉가설에서는[47] 특정집단과의 상호작용이 그 집단에 대한 편견해소나 부정적 태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노인접촉경험과 차별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들과 젊은 세대의 직접적 접촉은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46].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많고[62] 노인과의 동거경험이나 평상시 노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63].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들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 영향요인으로도 노인과의 동거경험과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등이 작용한다고 파악되었다[103]. 대학생들이 노인과 접촉을 많이 할수록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였고[64], 노인관련 교육에서도 노인접촉경험이 많은 대학생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태도가 더 많이 향상되었고[65], 청소년

대상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33].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근래에는 노인과의 접촉빈도뿐만 아니라, 접촉의 질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66, 67],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질적일수록 이해 수준 증가와 차별인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교육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노인접촉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더 검증되어야 한다.

사회학자들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행동과 태도는 그 집단에 대한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집단에 대한 지식 여부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노인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 노인에 대한 선입견 및 고정관념과 같은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연구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68].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을 연구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노화지식이 증가하면 노인차별은 낮아지는 부적상관관계를 시사하였고[41, 69] 대학생의 노화지식수준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상관관계가 있고[70], 차별행동이 예측 가능함을 시사하였다[7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는 노화지식수준 향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는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노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고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37]. 한국대학생과 일본대학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38] 한국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이 일본 대학생보다 더 부정적이었고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더 낮았으며, 노화불안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영국 대학생들 모두 노인에 대한 지식이 적을수록 노인차별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 지식, 고정관념, 인식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72],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43] 등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이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과 노인차별인식이나 노인차별태도의 상관성을 시사하였다.

## 2.2 노인접촉경험 및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공감능력(empathy)은 상담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고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 간주되며[73], 전문적 원조관계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차별과 관련하여 공감능력이 주

목받고 있는데, 공감능력이란 상대방이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과 의미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에 대한 수용적 이해를 전달하는 능력이다[74]. 공감능력을 다룬 일반적 연구들은 연령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주목하였으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시사하지는 못하였다[75, 76]. 다른 측면에서 공감능력을 다룬 연구들은 공감능력이 타인에게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77, 78].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인식이나 차별행동에 대한 공감능력의 상관성을 다룬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 말 노인환자 대상 연구에서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와 치료사의 공감적 의사소통은 노인환자의 자아개념 증가와 비인격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79]. 치료사의 공감능력은 암환자의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80], 치료사의 공감능력이 환자에 대한 차별인식에 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81, 82]. 또한 공감능력과 차별인식 간의 부적상관관계가 검증되어[83] 공감능력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치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공감능력이 업무상 소진 감소와 치매노인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긴밀한 치료적 관계 형성에 영향요인임을 시사하였다[83].

노인차별인식과 공감능력을 동시에 다룬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간호학계에서 이루어졌으며, 공감능력은 간호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다[39, 55]. 노인인권분야의 연구에서도 공감능력과 인권태도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공감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친화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84].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공감능력이 노인차별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 공감능력 그리고 노인차별인식을 하나의 연구모형 안에 설정하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변수 중 일부를 다룬 선행연구는 비교적 다수가 존재하였는데, 노화지식과 노인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한 연구들이다[49, 64, 85]. 최근에는 노인차별에 대한 경로분석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지식 및 접촉경험이 노인차별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37].

본 연구와 다소 유사한 구조로 진행된 선행연구로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감능력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86]. 또한 대학생의 사회지배 지향성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감능력의 조절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공감능력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87]. 그러나 유사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노인접촉의 양과 질이 노인에 대한 정서적 회피와 차별, 고정관념과 모두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공감능력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88].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과 노인편견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공감능력수준과 노인에 대한 편견의 부적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31]. 그러나 선행연구를 확대하여 고찰해본 결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에서 가해자에게 동조한 경향이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남으로써[89] 공감능력이 집단따돌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검증되었다.

이처럼 공감능력의 조절이나 매개역할은 어떤 연구모형이나 맥락에 투입되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에[49, 64, 85] 근거하여 노화지식과 노인접촉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노인차별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예측하였으며, 공감능력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감능력을 선행변수나 결과변수로 상정하고 진행하였던 단선적 선행연구들은 많았으나, 본 연구처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에 대한 차별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던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조명하지 않았던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을 감소시키고 세대 간 통합에 대한 실천적 제안과 세대갈등 해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노화지식과 노인접촉경험

이 노인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각각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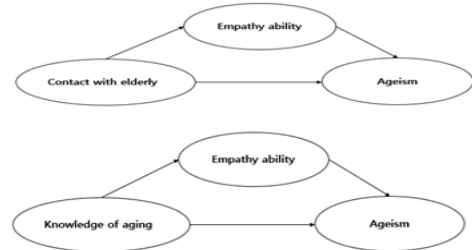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은 그들의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파악되었고, 대부분은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높을수록 차별인식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49, 64, 85]. 또한,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공감능력의 매개 역할을 일부 연구에서 시사하였으므로[89],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노인접촉경험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노인접촉경험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인식의 관계를 공감능력이 매개할 것이다.
- 가설4.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노화지식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의 관계를 공감능력이 매개할 것이다.

####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 355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을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sup>1)</sup>

#### 3.3 측정 도구

##### 3.3.1 노인차별인식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을 측정하기 위하

1) 동신대 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1040708-201811-SB-047)

여 Fraboni 등이 개발한 노인차별 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FSA)를 사용하였다[90]. 이 척도는 노인에 대한 적대적 언어, 회피, 차별의 3개 하위요인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십대의 자살은 노인의 자살보다 더 비극적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과거 속에 갇혀 산다', '나는 노인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로 나타났다.

### 3.3.2 노화지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노화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가 개발한 'Facts On Aging Quiz'를 사용하였다[91]. 이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영역에 대한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구성된 문항들을 보면, '대부분의 노인은 그들이 대부분 비참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고령 근로자는 젊은 근로자만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다', '노인들의 대다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등이 있다. 이 도구는 각 문항별로 '정답'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계산하여 총점(0~25점)이 높을수록 노화지식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로 나타났다.

### 3.3.3 노인접촉경험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노인접촉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Hutchison 등의 척도[92]를 기반으로 김지연 등이 재편한[93]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과의 접촉 빈도 4개 문항과 접촉의 질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살아오면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노인들과 교류했다', '노인과 함께 했던 경험은 즐거웠다', '노인과의 갈등으로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많고 긍정적인 접촉을 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 이었다.

### 3.3.4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aren과 Wheelwright가 개발하고[94] Wakabayashi 등이 수정하여 사용했던[95] 22개 문항을 토대로, 여지영이 11개 문항의 단일구조로 구성한[96] 한국판 단측공감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누군

가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등의 문항이 있다. 이 척도는 강한 긍정(매우 그렇다)에서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단계 응답방식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다.

## 4. 분석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노인접촉경험 및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의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 5. 연구결과

### 5.1 대상자의 일반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을 보면 여학생 59%, 남학생 41%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28.5%, 2학년 25.6%, 3학년 26.2%, 4학년 19.7%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146	41.1
	Female	209	58.9
Grade	1 Grade	101	28.5
	2 Grade	91	25.6
	3 Grade	93	26.2
	4 Grade	70	19.7

\*Non-response has to handle missing values

### 5.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들 간 전반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학생들의 노인차별인식과 공감능력, 노화지식과 노

인접촉경험은 서로 정(+)의 관계를 보였고, 변수들 간 그 외의 관계에서는 모두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상관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2.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Ageism	Knowledge of Aging	Empathy	Contact with Elderly
Ageism	1			
Knowledge of Aging	-.179**	1		
Empathy	.219**	-.139**	1	
Contact with Elderly	-.592**	.227**	-.201**	1

\*p<.05, \*\*p<.01

### 5.3 매개효과 분석

#### 5.3.1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인식 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의 관계를 공감능력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시한 단계[97]에 따라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노인접촉경험이 노인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92, p < .05$ )(가설1 채택).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2단계의 결과를 보면, 노인접촉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01, p < .05$ )(가설2 채택).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감능력이 종속변수인 노인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104, p < .05$ ). 이때 노인접촉경험이 노인차별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1단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을 통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어 가설3이 채택되었다(Table 3. 참고).

Table 3.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between elderly contact experience and ageism

step	Predictive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beta$	t	R <sup>2</sup>	F
1	Contact with Elderly	Ageism	-.302	-.592	-13.793*	.351	190.25
2	Contact with Elderly	Empathy	-.084	-.201	-3.855*	.040	14.86
3	Contact	Ageism	-.292	-.571	-13.119*	.361	99.28

with Elderly	Empathy		
		.127	.104 2.397*

\*p<.05

노인접촉경험과 노인차별인식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갖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obel 검증은 95% 유의수준에서  $|Z| > 1.96$ 이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 검증결과 Z값이 -2.030 ( $p < .05$ )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Table 4. Results of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Path	Z값	P
Contact with Elderly → Empathy → Ageism	-2.030	0.000

#### 5.3.2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 간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79, p < .05$ )(가설4 채택).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노화지식이 매개변수인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 = -.139, p < .05$ )(가설5 채택). 마지막 3단계에서는 공감능력이 노인차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98, p < .05$ ). 그리고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beta = -.151, p < .05$ ), 영향력이 1단계에 비해 감소한 것을 통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가설6 채택).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mpathy on knowledge of aging and ageism

step	Predictive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beta$	t	R <sup>2</sup>	F
1	Knowledge of aging	Ageism	-.563	-.179	-3.406*	.032	11.602
2	Knowledge of aging	Empathy	-.361	-.139	-2.641*	.019	6.976
3	Knowledge of aging	Ageism	-.476	-.151	-2.905*	.070	13.305
	Empathy		.241	.198	3.816*		

\*p<.05

노화지식과 노인차별인식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갖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수

행한 결과, Z값이  $-2.170(p < .05)$ 으로 나타남에 따라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Table 6. 참조).

Table 6. Results of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Path	Z값	P
Knowledge of aging → Empathy → Ageism	-2.170	0.000

## 6.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노인차별인식, 노인접촉경험, 노화지식 및 공감능력수준을 알아보고, 대학생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 6.1 결론요약 및 연구함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먼저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에 대해 공감능력과 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노인접촉경험이 주요 영향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노화지식과 노인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한다 [49, 64, 85].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공감능력이 차별인식과의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102], 이들의 공감능력이 치매노인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력이 있음을 검증한 선행연구를[83] 지지하고 있다. 특히, 간호학계의 선행연구들은 간호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공감능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39, 55],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도 공감능력은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105]. 그리고 본 연구결과처럼 공감능력이 차별인식에 대한 매개효과가 검증된 유사한 연구들도 있으며 [81, 82], 노인인권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감능력과 인권태도가 상관관계가 있으며 공감능력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4].

이처럼 대학생들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을 확장시키고 공감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이 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정규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과정에 노화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노년학이나 노화과정을 다루는 교과목의 수강을 권장하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인차별인식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격 및 사적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차별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다[5].

둘째, 공감능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공감능력은 훈련을 통해 가능한 인간관계 기술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104] 노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경험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에게 노인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과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과의 질적 접촉을 통한 관계형성이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므로[98],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노인접촉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노인복지기관 자원봉사프로그램, 노인가정방문, 노인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말벗서비스, 노인자조모임 지원, 노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지원, 세대 간 멘토링, SNS를 통한 소통 프로그램 개발, 여가를 통한 세대 간 다양한 접촉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겠다.

넷째, 노인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관련 실무영역에서는 지역사회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장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김수영 등의 세대교육프로그램 [67]이나 국외의 세대 간 공동주거정책[99] 등은 젊은 세대와 노인의 교류를 통해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프로그램들이다.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이 적극 실행되도록 사회 각 분야의 다각적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자신의 노화과정을 더 잘 수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100].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갈등요소인 노인차별인식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01], 이는 구직이나 고용 시에 연령 차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차



별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고 여전히 노인차별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실효성 있는 법 적용으로 인하여 노인차별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17]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복지관련 정책입안자들의 노인차별인식을 개선하고 법적근거 보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방향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의 노인차별인식 영향 요인을 다각적 측면에서 탐색하였고,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노인차별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해 대학생의 공감능력 향상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주관적 노인차별인식조사에 국한되어 사회의 제도적 차별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점 등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의 일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노인차별인식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실질적인 노인차별인식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노인차별인식의 발생 원인을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노인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ONS(Offices for National Statistics). (2015). <http://mentalhealthdaily.com2014/07/23/15common-causes-of-suicide-why-do-people-kill-themselves/>
- [2] R. N. Butler.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4, Pt.1), 243-246.
- [3] T. D. Nelson. (2005). Ageism: Prejudices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07-221. DOI: 10.1111/j.1540-4560.2005.00402.x
- [4] WHO. (2018). *A global campaign to combat ageism*. Bullentin World Health Organ. 299-300. DOI: 10.2471%2FBLT.17.202424
- [5] RSPH(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 (2018). *That age old question: How attitudes to ageing affect our health and wellbeing*. Caluste Gulbenkian Foundation. DOI: <https://www.rsph.org.uk/uploads/assets/uploaded/010d3159-0d36-4707-ae54e29047c8e3a.pdf>
- [6] S. K. Whitbourne, J. R. Sneed & K. M. Skultety. (2002). Identity processes in adulthoo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2, 29-45. DOI: 10.1207/S1532706XID0201\_03
- [7] G. Robertson. (2017). Ageing and ageism: the impact of stereotypical attitudes on personal health and well-being outcomes and possible personal compensation strategy. *Self &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Humanistic Psychology*, 45, 2149-159. DOI: 10.1080/03060497.2017.1334986
- [8] W. Kim. (2003). An Exploratory Study on Ageism Experienced by the Elderly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 21-35.
- [9] Y. H. Won. (2005). Experiences of Elderly Discrimin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Social Welfare Policy*, 21, 319-339.
- [10] J. N. Yang, E. J. Choi, M. H. Lee, Y. Kim & N. H. Kim.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and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3), 215-239.
- [11] K. H. Kim, S. P. Yook. (2013). The effects of ageism for the elderly experience on suicide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31-151.
- [12] L. M. Smith, C. D. Bergeron, C. Cowart, S. N. Ahn, Jr. S. D. Towne, M. G. Ory, M. A. Menn and J. Chaney. (2017). Factors associated with ageist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17(10), 1698-1706. DOI: 10.1111/ggi.12894
- [13] K. Ayalon. (2014). Perceived age, gender, and racial/ethnic discrimination in Europe: Result from the European society survey. *Educational Gerontology*, 40(7), 499-517. DOI: 10.1080/03601277.2013.845490
- [14] E. Palmore.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15] D. Abrams, P. S. Russell, C-M. Vauclair & H. J. Swift. (2011). *Ageism in Europ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Technical report AgeUK. URI: <https://kar.kent.ac.uk/id/eprint/29733>
- [16] D. Vilmaz, S. Kisa & S. Zeyneloglu. (2012) *University Students' Views and Practices of Ageism*. *Ageing International*, 37, 143-154.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2126-010-9097-5>
- [17] I. Rippon, Zaninotto and Steptoe. (2015). Greater Perceived Age Discrimination in England than the United State: Result from HRS and ELSA.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70(6), 926-933. DOI: 10.1093/geronb/gbv040
- [18] C. B. Holroyd, O. E. Krgolson, R. Baker, S. Lee and J.

- Gibson. (2009). When is an error not a prediction error? An electrophysiological investigation..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9(1), 59-70.  
DOI: 10.3758/CABN.9.1.59
- [19] D. Dobbs, J. K. Eckert, B. Rubinstein, L. Keimig, L. Clark, A. C. Frankowski & S. Zimmerman. (2008). An ethnographic study of stigma and ageism in residential care or assisted living. *The Gerontologist*, 48(4), 517-526.  
DOI: 10.1093/geront/48.4.517
- [20] S. McGuire, D. A. Klein & S. L. Chen. (2008). Ageism Revisited: A Study Measuring Ageism in East Tennessee, USA. *Nursing and Health Science*, 10(1), 11-16.  
DOI: 10.1111/j.1442-2018.2007.00336.x
- [21] S. R. Levy & J. L. Macdonald. (2016). Progress on Understanding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5-25.  
DOI: 10.1111/josi.12153
- [2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6). *A Survey on the Social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 [23] E. J. Ji. (2018).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Ageism in Korea-Focusing on Labor Market*. Korea Elder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Basic-17-07.
- [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02. 09) "We will provide quality elderly employment support in accordance with systematic competency evaluation: 2018~2022 Announcement of the second comprehensive plan for seniors'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ies", (Encore Life Plan). 2018. 02. 09. Press Release.
- [25] Cooper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2017. 08. 09). The government's first plan to build a new middle-aged-life three-faced "plan" 2017. 08. 09. Press release
- [26] L. Y. Zhou. (2007). What college students know about older adults: a cross-cultural qualitative study. *Educational Gerontology*, 33(10), 811-31.  
DOI: 10.1080/03601270701364545
- [27] V. D. Yılmaz & F. Terzioğlu. (2009). *YaşlıAyrımcılığı ve Hemşirelik(Ageism and Nursing: Review)*. Türkiye Klinikleri Hemşirelik Bilimleri Dergisi.
- [28] S. O. Kang. (2013). *The Impa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on Preparation for Old Age*,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the Elderly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29] B. Lou, Z. Kui, E. J. Jin, A. Newman & J. Liang. (2013). Ageism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U.S. and China. *Journal of Cross- Cultural Gerontology*, 28(1), 49-63.  
DOI: 10.1007/s10823-013-9186-5
- [30] K. E. Kim. (2012).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Willingness to Provide Counseling for the Elderly*.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 [31] J. H. Son. (2017).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ontact with Elderly and Empathy on Prejudice towards the Elderl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32] D. A. Jansen & M. A. Morese. (2004). Positively influencing student nurse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elders. *Gerontology & Education*, 25(2), 1-14.  
DOI: 10.1300/J021v25n02\_01
- [33] D. J. Van Dussen & R. R. Weaver. (2009).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and behaviors related to the aged and to aging process. *Educational Gerontology*, 35(4), 342-357.  
DOI: 10.1080/03601270802612255
- [34] H. G. Shin. (2012). Effects of the elderly's ageism experience on suicidal thought and mediating effect of hopelessn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6, 191-215.  
DOI: 10.21194/kjgsw..56.201206.191
- [35] B. J. Yeon, W. H. Kim & K. A. Yoon. (2005).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3), 59-73.  
UCI : G704-000573.2005.25.3.008
- [36] M. H. Kim. (2013). The Influence of elderly contact on attitude towards elderly of undergraduate : mediating effect of aging anxiet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Proceedings*, 1, 332-333.
- [37] H. K. Lee. (2016). *The Influence of Knowledge about Aging and Elderly Contact on Ageism of Early Adulthood : Mediating Effect of Aging Anxiet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 [38] H. S. Chang. (2015). *A Study on Ageism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eo University.
- [39] H. J. Yang, H. J. Kim & E. K. Byun. (2017). Factors influencing empathy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86-94.  
DOI: 10.5762/KAIS.2016.17.5.86
- [40] N. R. Cottle & R. J. Glover. (2007). Combating ageism: Chang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regarding ageing. *Educational Gerontology*, 33(6), 501-512.  
DOI: 10.1080/03601270701328318
- [41] M. J. Edwards & I. R. Aldous. (1996). Attitudes to and knowledge about elderly people: A comparative analysis of students of medicine, English and Computer Science and their teachers. *Medical Education*, 30(3), 221-225.  
DOI: 10.1111/j.1365-2923.1996.tb00746.x
- [42] J. R. Han. (2000).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 towar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3), 115-127.
- [43] E. J. Song. (2004). Nurses and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Nursing*

- Science*, 16(2), 12-19.
- [44] S. M. Kwon, M. S. Kwan and O. G. Kwag.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2), 1129-1136. DOI: 10.5762/KAIS.2015.16.2.1129
- [45] J. H. Kim and J. Han. (2012). The comparisons of Strategies Combating Ageism among Korea, Japan and U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3), 93-113. DO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94881>
- [46] A. Caspi.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t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a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47-80. DOI: <https://psycnet.apa.org/doi/10.2307/3033890>
- [47] G. W. Allpor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p. 537.
- [48] H. J. Lee & H. J. Bang. (2012). The Differences of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in College Students and Older Peop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8(2), 191-213.
- [49] L. J. Allen & J. A. Johnson. (2008).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e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1), 10-14. DOI: 10.1080/03601270802299780
- [50] A. L. Marte. (1988). How does it feel to be old? Simulation game provides into aging experienc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19(4), 166-168. DOI: 10.3928/0022-0124-19880701-06
- [51] E. L. La Monica. (1981). Construct validity of an empathy instrumen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4(4), 389-440. DOI: 10.1002/nur.4770040406
- [52] M. S. Chung.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DOI: 10.5977/jkasne.2014.20.2.332
- [53] A. D. Galinsky. (1999). *Perspective-taking: Debiasing social thought(stereotyp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 [54] S. Gholamzadeth, M. Khastavaneh, Z. Khademian & S. Ghadakpour. (2018). The effects of empathy skills training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nd attitudes toward elderly people. *Journal of BMC Medical Education*, 18, Article number: 198. DOI: 10.1186/s12909-018-1297-9
- [55] H. S. Jung. (2012). Influencing factor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14(4B), 2025-2037.
- [56] T. Strandberg, J. Eklund & J. Manthorpe. (2012). Promoting empathy in social care for older people. *Working with older people*, 16(3), 101-110. DOI: 10.1108/13663661211260781
- [57] A. Officer & V. L. Fuente-Nunez. (2018). *A Global campaign to combat ageism*. Bulletin World Health Organ, Apr 1; 96(4): 295-296. DOI: 10.2471/2FBLT.17.202424
- [58] W. A. Achenbaum. (2005). *Ageing and changing: International historical perspectives on ageing*. In M. L. Johnson (Ed.), *Cambridge Handbook of Age and Ageing* (21-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9] A. Boduroglu, C. Yoon, T. Luo & D. C. Park. (2006). Age-Related Stereotypes: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Cultures. *Gerontology*, 52, 324-333. DOI: 10.1159/000094614
- [60] H. S. Lee & C. M. Kim. (2016).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o Assess Discriminations,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Women in South Korea. *Asian Nursing Research*, 10(3), 182-183. DOI: 10.1016/j.anr.2016.06.003
- [61] H. Giles, J. Fortman, J. Honeycutt & H. Ota. (2003). Future selves and others: A lifespan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Communication Reports*, 16(1), 1-22. DOI: 10.1080/08934210309384486
- [62] J. H. Seomun. (2013). The Effect of Experiences of social Work Practicum and Volunteering on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2, 114-136.
- [63] Y. S. Lim, J. S. Kim & K. S. Kim. (2002).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1), 31-46.
- [64] J. Y. Kim. (2015). *The perceived threat to elderly group on ageist behavior: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emotion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65] S. Y. Kim, T. H. Sohn, S. J. Chang & K. J. Moon. (2016).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erontological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1), 53-84.
- [66] L. K. Schwartze & J. P. Simmons. (2001). Contact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7(2), 127-137. DOI: 10.1080/03601270151075525
- [67] S. H. Jung & E. H. Kim. (2013). Image toward the elderl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Gangwon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6), 1071-1077. DOI: 10.13065/jksdh.2013.13.06.1071
- [68] M. Fishbein. and I.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u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69] A. M. O'Hanlon, C. J. Camp & H. J. Osofsky, (1993).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Aging in Young, Middle-Aged, and Older College Students: A Comparison two measures of knowledge of ageing. *Journal of Educational Gerontology*, 19(8), 753-766. DOI: 10.1080/0360127930190806
- [70] C. Andreoletti, J. P. Leszczynski & W. B. Disch. (2015). Gender, race, and age: The content of compound stereotypes across the lifespa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81(1-2), 27-53. DOI: 10.1177%2F0091415015616395
- [71] B. Funderburk, J. Damron-Rodriguez, L. L. Storms & D. H. Solomon. (2006). Endurance of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32(6), 447-462. DOI: 10.1080/03601270600685651
- [72] M. S. Kwon, G. Y. Noh & J. H. Jang. (2013). University Student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3), 633-646.
- [73] S. H. Park. (2004). *Sympathy*, Press Hagjisa: Seoul.
- [74] M. E. Campbel. (1971). Study on the attitudes of nursing personal toward geriatric patient. *Nursing Research*, 20(2), 147-150.
- [75] G. Labouvie-Vief, D. Gruhn & H. Mouras. (2009). *Dynamic emotion cognition interactions in development: Arousal, stress, and the processing of affect*. In H. B. Bosworth & C. Hertzog (Eds.), *Decade of Behavior (2000 -2010). Aging and cognition: Research methodologies and empirical advances*(p.181-19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11882-009>
- [76] H. K. Yang, K. Y. Ohk, K. W. Park & S. H. Joo. (2015). Does Empathy Mediate Consumer Attitude Towar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Kore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6(2), 119-141.
- [77] C. D. Batson and N. Y. Ahmad. (2009).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up attitudes and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3(1), 141-177. DOI: 10.1111/j.1751-2409.2009.01013.x
- [78] J. M. Kanov, S. Maitlis, M. C. Worline, J. E. Dutton, P. J. Frost and J. M. Lilius. (2004). Compassion in Organizational Lif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7(6), 808-827. DOI: 10.1177%2F0002764203260211
- [79] L. Carol & R. N. Elaine (1979). Empothic communication and its effect on client outcome.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1), 15-26. DOI: 10.3109/01612847909058196
- [80] S. Lelorain, A. Bredart, S. Dolbeault & S. Sultan. (2012). A Systematics review of the associations between empathy measures in patient's outcomes in cancer care. *Psycho-Oncology*, 21(12), 1255-1264. DOI: 10.1002/pon.2115
- [81] C. D. Batson, J. Chang, R. Orr & J. Rowland. (2002). Empathy, attitudes and action: Can feeling for a member of stigmatized group motive one to help the group?. *Personality psychology bulletin*, 28(12), 1656-66. DOI: 10.1177%2F014616702237647
- [82] Y. S. Bergman, E. Bodner & S. Cohen-Fridel, S.(2013). Cross-cultural ageism; ageism and attitudes toward aging among Jews and Arabs in Israel.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25(1), 6-15. DOI: 10.1017/S1041610212001548
- [83] S. Astrom, M. Nilsson, A. Norberg, P.-O. Sandman & B. Winblad. (1991). *Staff burn out in dementia care—Relations to empathy and att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8(1), 65-75. DOI: 10.1016/0020-7489(91)90051-4
- [84] D. S. Son.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of Certified Care giv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8, 259-322.
- [85] Y. H. Won. (2003). Factors Affecting Elderly Prejudic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Conference*, pp. 275-296.
- [86] J. H. Jung. (2015). *The Effect of Caregiver's Attitude on Service Quality for the Elderl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r empathy ability*. Master's Thesis.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87] S. Y. Hwang, J. S. Kang & H. J. Kang. (2017). The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n Attitudes toward The Social Weak: Moderating Effects of Empathy.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41(3), 181-206.
- [88] A. D. Galinsky, G. Ku & C. S. Wang. (2005). Perspective-taking & self-other overlap: Fostering social bonds and facilitating social coordin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8(2), 109-124. DOI: 10.1177%2F1368430205051060
- [89] S. H. Park & W. C. Jeong. (2017).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perpetrator and the conformity in the bullying.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0, 1-19.
- [90] M. Fraboni, R. Saltstone & S. Hughe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 9(1), 56-66. DOI: 10.1017/S0714980800016093
- [91] E. B. Palmore. (1998). *The Facts on Aging Quiz(2nd ed.)*. New York: Springer.
- [92] P. Hutchison, E. Fox, A. M. Laas, J. Matharu & S. Urzi. (2010). Anxiety, outcome expectancies, and young people's willingness to engage in contact with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36(10-11), 1008-1021. DOI: 10.1080/03601271003723586
- [93] J. Y. Kim, M. H. Kim & K. H. Min. (2012).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raboni Ageism Scale(FSA):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6(4), 89-106.

[94] S. Baron-Cohen & S. Wheelwright.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 Developmental Disorders*, 34, 163-175.

[95] A. Wakabayashi, S. Baron-Cohen, S. Wheelwright, N. Goldenfeld, J. Delaney, D. Fine et al. (2006) Development of short forms of the Empathy Quotient (EQ-Short) and the Systemizing Quotient (SQ-Sh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5), 929-940. DOI: 10.1016/j.paid.2006.03.017

[96] J. Y. Yeo. (2012).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mpathy Quotient-Short form.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1), 5356-5363. DOI: 10.5762/KAIS.2012.13.11.5356

[97]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98] L. Drury, P. Hutchison & D. Arbams. (2016). Direct and extended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young people's attitudes towards older adul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5, 522-543. DOI: 10.1111/bjso.12146

[99] D. J. Gierveld, P. A. Dykstra & N. Schenk. (2012). Living arrangements, intergenerational support types and older adult loneliness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27(7), 167-200. DOI: 10.4054/DemRes.2012.27.7

[100] P. A. Crawford. (2015). Focus on elementary: Rock of age: Developing healthy perspective ageing in the elementary grade. *Child hood Education*, 91(5), 395-401. DOI: 10.1080/00094056.2015.1090858

[101] S. N. Jeon & H. G. Shin. (2009). The Effects of Perceived Health and Ageism Experience on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4), 1383-1396.

[102] W. H. Moon, M. J. Kwon & Y. H. Kim. (2016). Converging Influence of Empathy and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on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the Mentally Illness Patients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81-88. DOI: 10.15207/JKCS.2016.7.6.081

[103] R. I. Hwang & I. A. Kim. (2019). Long-term care Employment Intention of Elderly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6), 401-409. DOI: 10.15207/JKCS.2019.10.6.401

[104] S. H. Ko. (2019). The Effect of Compassion on Job

Performance: Focusing on the Creating Research Model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6), 65-74. DOI: 10.22156/CS4SMB.2019.9.6.065

[105] S. Y. Park. (2017).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 supporting awareness in their empathy about elderl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5), 25-30. DOI: 10.22156/CS4SMB.2017.7.5.025

**양 정 남(Jeoung-Nam Yang)**

[정회원]



- 1993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7년 12월 : 영국 University of London 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의료 및 정신건강복지

· E-Mail : jnyang3697@hotmail.com

**최 은 정(Eun-Jeung Choi)**

[정회원]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4년 2월 : 숭실대 사회복지학 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사회복지, 중독, 사례관리

· E-Mail : ejchoi3781@dso.ac.kr

**김 화 선(Hwa-Sun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상담학과(상담심리학석사)
- 201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5년 3월 ~ 2019년 4월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정신건강

· E-Mail : hskim3036@hanmail.net